

인대의 허리 기준선 설정에 따른 입체 패턴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Draping Pattern based on Setting Waist Base Line of Dress Form

양정은* · 김양원 · 이은경 · 이해영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Yang, Chung-Eun · Kim, Yang-Weon · Lee, Eun-Kyung · Lee, Hae-Young

Dept. of Fashion Design · Business, Daejeon University

Abstract

The research thesis has been intende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basic bodice pattern and basic skirt pattern changing on the basis of setting waist line of dress form in an effort to set reasonable standards in selecting the standard lines of drees form. The thesis has made the wearing evaluation by producing the sample of upper and lower dress based on A pattern and B pattern. In details, A pattern functions to keep waist line flatly down from lateral waist-right to posterior waist in a little curved state, paralleling bust line and hipline with waistline. And, B pattern functions to keep waistline, bust line and hipline horizontal paralleling with ground surface.

SPSS win 10.1 program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evaluation and t-test.

The result is as follows: For basic bodice-front of upper dress, A and B patterns have made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gard to basic bodice-back, B pattern has got the higher evaluation than A pattern, in the pattern stability and appearance.

For basic skirt pattern, A pattern has got the lower evaluation in the aspect of total back appearance, back dart, hip line, and waist line, and front drape. Basic bodice pattern of A pattern, which takes on the different horizontal standard lines of dress form depending on the selection of waistline, and basic skirt pattern has scored less in terms of pattern stability and appearance.

Key Words : Base Line of Dress Form, Waist Line, Draping Pattern

I. 서론

의복의 대량생산이 본격화 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복을 가봉 없이 적합 시켜야 하는 의복 제작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각 집단의 대 표치와 같은 체형과 치수를 가진 인대에 의한 입체재단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어숙경, 1991).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정확한 인체 적합성을 고려한 입체재단을 하기 위한 인대의 기준선 설정은 의복 제작의 표준 눈금이 될 뿐 아니라 직물의 올 방향을 맞추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대 위에서 기준점과 기준선 설정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원형 제도 법을 사용하여 의복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그 적합성은 낮

아질 수밖에 없다(이정임, 1990).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대의 기준선 설정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 허리 기준선의 경우에는 허리둘레선을 상반신의 체축 기울기에 직각으로 유지시켜 인대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 허리옆점부터 허리뒤점까지 약간 처진 상태로 완만하게 내려간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지면과 평행한 수평선을 유지 하도록 하는 것 두 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자는 프랑스 오뜨 꾸뛰르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젖가슴둘레선 및 엉덩이둘레선을 허리둘레선과 평행하게 설치하고 있어 허리둘레선에 따라 젖가슴둘레선 및 엉덩이둘레선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원피스나 드레스 등의 경우 허리 절개선을 약간 뒤가 치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三吉満智子, 2002). 후자는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

* Corresponding author: Yang, ChungEun
Tel: 042) 280-2462, Fax: 042) 280-2460
E-mail: chungeun@dju.ac.kr

으로 허리둘레선을 지면과 수평을 원칙으로 하여, 젖가슴둘레선 및 엉덩이둘레선도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며 재킷, 코트 및 모든 복종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의복의 아이템이나 목적, 혹은 패턴 제작자의 판단에 따라 허리둘레선 설정의 기준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패턴 제작 시 사용되는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거나 규명된 것은 없는 상태이다.

관련 연구로는 김예경 등(2006)의 슬랙스의 허리선 위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착용감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이는 디자인과 착용감에 대한 연구로 현재까지 기준선에 따른 패턴의 인체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각각 다른 기준선 설정에 따른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의 원형 및 스커트 원형을 입체재단 한 후 기준선에 따른 패턴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현재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기준선 설정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보다 정확한 패턴 제작 방식에 따라 인체 적합성이 높은 입체패턴을 제작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의복 착장 시 만족감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체재단으로 상의 원형을 제작하고 인대 기준선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상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입체재단으로 스커트 원형을 제작하고 인대 기준선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상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관능검사를 통하여 보다 인체 적합성이 높은 기준선 설정을 제시한다.

II. 연구 방법

1. 인대의 기준선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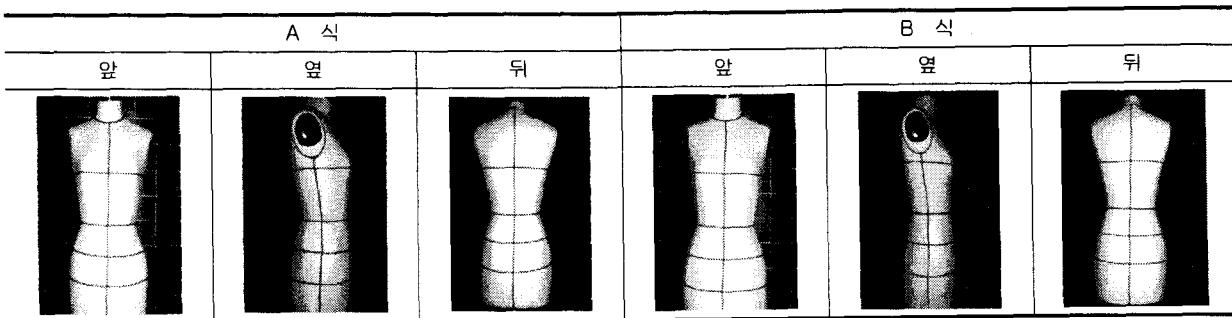
인대는 한국 기성 모델의 평균 사이즈를 기준으로 서울, 파리 입체재단 연구소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인대 두 개를 선택하였다. 두 개의 인대는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 제품으로 허리 기준선 설정에 있어 허리옆점부터 허리뒤점까지 약간 처진 상태로 완만하게 내려간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하 A식)과 지면과 평행한 수평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하 B식)으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기준선을 설치하였다. B식은 수평 기준선 설치를 위하여 마틴식 계측기의 수직자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하였다. 사용한 인대의 중요 부위별 치수는 <표 1>과 같다. 인대의 기준선 설치 방법은 <표 2>, [그림 1]에 정리하였고 기준선은 8항목을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표 1> 인대의 중요부위별 치수

부위 인대종류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어깨가쪽 사이길이	겨드랑앞벽 사이길이	겨드랑뒤벽 사이길이	젖꼭지 사이 수평길이	어깨길이	등길이
A식	84	63	89	35	32	33	16	11	39
B식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표 2> 인대의 기준선 설치 방법

기준선	설치방법	
	A식	B식
1. 허리둘레선	인대의 허리 옆 부분 중 가장 가는 곳을 지나는 수평둘레선을 표시하고 뒤중심선에서 1cm 내린 후 허리옆점과 자연스럽게 연결한 선	인대의 허리 옆 부분 중 가장 가는 곳을 지나는 수평둘레선
2. 젖가슴둘레선	허리둘레선과 B.P 사이의 길이를 잰 후 허리선에 서 수직으로 옮긴 선	젖꼭지점을 지나는 수평둘레선
3. 중간엉덩이둘레선	허리둘레선에서 9.5cm 내려온 선	설치하지 않으나 비교를 위하여 A식과 동일하게 설치
4. 엉덩이둘레선	중간엉덩이둘레선에서 9.5cm 내려온 선	허리둘레에서 엉덩이의 가장 돌출된 부분을 지나는 수평둘레선
5. 앞중심선	목중심점에서 바닥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선	A식과 동일
6. 뒤중심선	목뒤점에서 바닥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선	A식과 동일
7. 목밀둘레선	목뒤점, 목옆점, 목앞점을 지나는 자연스러운 곡선	A식과 동일
8. 옆선	어깨가쪽점에서 허리옆점을 지나 바닥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	A식과 동일
9. 겨드랑둘레선	위팔빼머리의 아동분선과 앞, 겨드랑뒤점을 지나는 자연스러운 곡선	A식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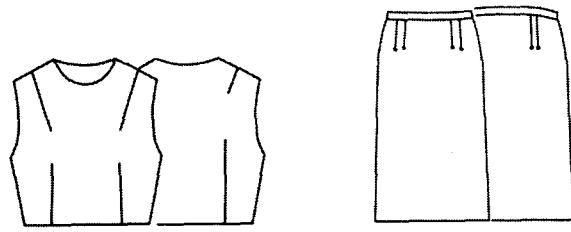
[그림 1] 인대의 기준선 설치 모습

<표 3> 실험복 소재의 물성

fabric	fiber contents	weave	density (warp×weft/inch)	thickness (mm)	weight (g/m ²)
muslin	cotton 100%	plain	50.0×53.4	0.06	0.96

2. 실험복 제작

실험복은 상, 하의 각각의 패턴 비교를 위하여 슬리브리스 형태의 피트한 상의 원형과 타이트스커트 원형을 입체재단으로 제작하였는데 상의의 경우 기준선으로 인한 패턴 상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가슴 닉트를 배제하고 어깨와 허리 닉트로 제작하였고, 하의는 자극물을 배제한 심플한 일자형 형태로 제작하였다 [그림 2]. 실험복 소재의 물성은 <표 3>와 같다



[그림 2] 실험복 디자인

3. 인대의 기준선 치수 분석

인대의 치수 분석을 위해 <표 2>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 인대의 기준선에 대하여 치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4. 기준선 변화에 따른 상의 원형 및 스커트 원형 비교 분석

상의 원형은 허리둘레선과 가슴둘레선을 광복의 기준선과 맞추어 입체재단을 실시한 후 기준선에 따라 패턴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스커트 원형은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 중간엉덩이둘레선 등을 광복의 기준선과 맞추어 입체재단을 실시한 후 기준선에 따른 패턴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5. 착의평가 및 자료 분석

두 개의 인대에 상의 원형 패턴으로 제작한 2벌, 스커트 원형 패턴으로 제작한 2벌, 총 4벌의 실험복을 상, 하의 분리하여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의복구성을 전공하고 의복 원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의상학 전공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있는 총 8명의 패널로 구성하였으며 검사 방법은 사진에 의한 착의평리를 실시하였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형을 착용시킨 뒤 상, 하의 모두 정면, 측면, 뒷면의 3장면을 촬영하였다. 촬영시 인대와 카메라의 거리는 1m, 렌즈높이는 100cm로 하였고 군주름 방향이나 기준선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근접 촬영하였다. 착의 평가는 컴퓨터 모니터에 상, 하의 별로 3장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실시하여 비교하기 쉽도록 하였다. 외관검사 항목은 기준선, 군주름, 닉트, 외관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검사항목에 필요한 문항을 상, 하의 구분하여 작성, 평가하였다. 관능검사의 평가 항목은 <표 4>과 같다. 원형간 유의성 검증을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win 10.1을 사용하여 t-test를 실

<표 4> 관능검사 평가항목

항목	구분	평가 내용
기준선	상의	1. 앞중심선은 바르게 놓여있는가
		2. 뒤중심선은 바르게 놓여있는가
		3. 젖가슴둘레선은 제 위치에 바르게 놓여있는가
		4. 허리둘레선은 제 위치에 바르게 놓여있는가
	스커트	1. 앞중심선은 바르게 놓여있는가
		2. 뒤중심선은 바르게 놓여있는가
		3. 허리둘레선은 제 위치에 바르게 놓여있는가
		4. 중간엉덩이둘레선은 제 위치에 바르게 놓여있는가
		5. 엉덩이둘레선은 제 위치에 바르게 놓여있는가
군주름	상의	5. 젖꼭지점을 향한 사선의 주름은 없는가
		6. 옆선을 향한 사선의 주름은 없는가
		7. 뒤어깨다트 끝점에서 뒤중심 방향으로 사선의 주름은 없는가
	스커트	6. 복부 정점을 향한 사선의 주름은 없는가
		7. 엉덩이 정점을 향한 사선의 주름은 없는가
다트	상의	8. 앞어깨다트의 길이와 분량은 적당한가
		9. 뒤어깨다트의 길이와 분량은 적당한가
		10. 앞허리다트의 길이와 분량은 적당한가
		11. 뒤허리다트 길이와 분량은 적당한가
	스커트	8. 앞다트의 길이와 분량은 적당한가
		9. 뒤다트의 길이와 분량은 적당한가
외관	상의	12. 앞판의 외관은 좋은 맞음새를 갖는가
		13. 뒤판의 외관은 좋은 맞음새를 갖는가
	스커트	10. 앞판의 외관은 좋은 맞음새를 갖는가
		11. 뒤판의 외관은 좋은 맞음새를 갖는가

시하였고 각 항목의 평균과 검사 자들 간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합적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인대의 기준선 치수 분석

A식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허리옆점부터 허리뒤점까지 약간 치진 상태로 완만하게 내려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인대 뒤 부분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허리 선을 기준으로 중간엉덩이둘레선, 엉덩이둘레선, 젖가슴둘레선 등 가로 기준선이 동일한 치수로 설정되어 인대의 정면과 뒷면에서 보았을 때 앞중심선과 뒤중심선을 중심으로 옆선을 향해 위로 향하는 타원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B식에서는 허리둘레선, 중간엉덩이둘레선, 젖가슴둘레선 등이 지면과 평행한 수평선을 유지함을 볼 수 있다.

이를 치수로 살펴보면 A식의 경우에는 허리둘레선을 기준으로 중간엉덩이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까지는 각각 9.5cm, 젖가슴둘레선까지는 16.5cm로 모두 동일하였고, B식의 경우 뒤중심선에서 옆선방향으로 이동하면서 A식보다 0.5cm씩 증가하고 있어 지면에서는 수평을 이루고 있으나 인대 위에서는 구간별 길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중심선 상에서 허리둘레선에서 젖가슴둘레선까지의 길이는 A, B식 모두 16.2cm로 가슴골로 인해 0.3cm씩 내려주어 평행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A식과 B식의 기준선 설정 방식의 차이로 인한 기준선 상의 치수 비교 결과는 <표 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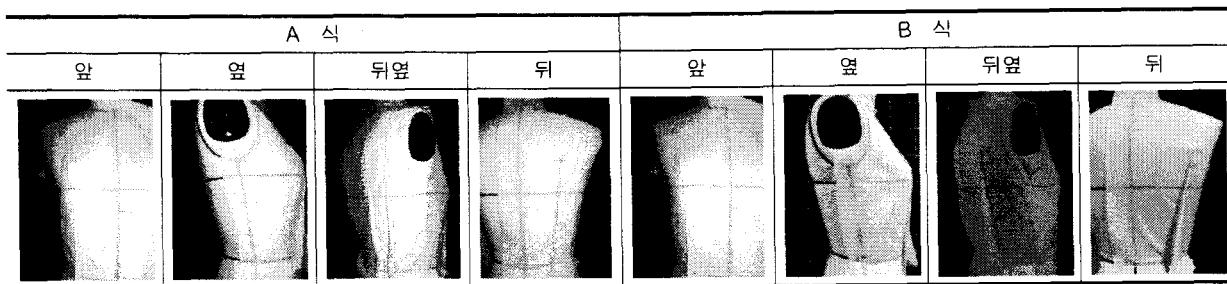
2. 기준선 변화에 따른 상의 원형 비교

기준선 변화에 따른 상의 원형의 입체재단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 [그림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상의 앞면의 경우 앞중심선에서 옆선까지 A, B식의 젖가슴둘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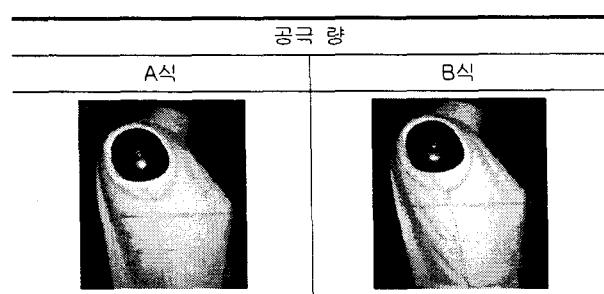
<표 5> 기준선 설정 방식에 따른 기준선 사이길이 치수

단위:cm

기준선간 거리 종류	젖가슴둘레선-허리둘레선					허리둘레선-중간엉덩이둘레선					중간엉덩이둘레선-엉덩이둘레선				
	측정 위치	앞중심 선 1/2지점	앞허리 선 1/2지점	뒤중심 선 1/2지점	뒤허리 선 1/2지점	옆선	앞중심 선 1/2지점	앞허리 선 1/2지점	뒤중심 선 1/2지점	뒤허리 선 1/2지점	옆선	앞중심 선 1/2지점	앞허리 선 1/2지점	뒤중심 선 1/2지점	뒤허리 선 1/2지점
A식	16.2	16.5	16.5	16.5	16.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B식	16.2	16.5	17	17	17	9.5	9.5	9.5	10	10	9.5	9.5	9.5	10	10



[그림 3] 기준선 변화에 따른 상의 원형 입체재단



[그림 4] 입체재단으로 인한 원형별 뒷길 공극량 차이

허리둘레선 모두 기준선에 차이가 없어 동일한 패턴이 제작되었으나 뒷면의 경우 허리둘레선, 젖가슴둘레선, 견갑골 수준선에서 A식이 B식보다 공극량이 많았는데, 이는 A식의 경우 젖가슴둘레선과 허리선이 옆선에서 뒤중심선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쳐져있으므로 광복의 가슴둘레 기준선과 허리둘레 기준선을 옆선에서 맞춰지면서 각각 2cm, 2cm, 0.6cm씩 공극량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공극량이 커짐에 따라 B식보다 닉트량도 많아져 2개의 닉트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7>에서와 같이 동일한 인대임에도 뒤판의 총 허리 닉트량은 A식이 8.4cm, B식이 6.8cm로 B식보다 1.6cm 더 많아졌고 이에 따라 허리뒤점에서 허리옆점까지의 길이도 A식이 1.6cm 더 크게 나타나 전체 패턴 크기가 커짐을 볼 수 있다.

기준선 변화에 따른 상의 원형의 입체재단 결과는 앞, 뒤 옆면을 입체재단 후 촬영하여 [그림 3], [그림 4]에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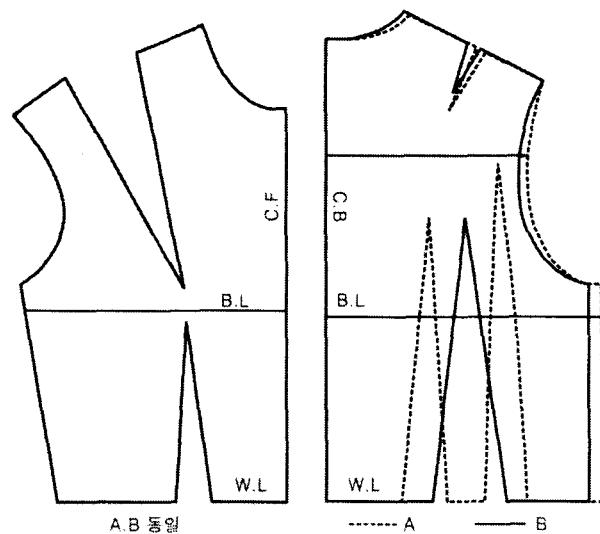
<표 6> 기준선 위치에 따른 원형별 공극량 단위:cm

기준선	공극량	
	A식	B식
견갑골수준선	0.6	0
젖가슴둘레선	4	2
허리둘레선	9	7

<표 7> 상의 원형 사이즈 비교

단위:cm

항목	종류	
	A식	B식
앞길	어깨다트량	7.0
	어깨다트 길이	21.5
	허리다트량	3.2
	허리다트 길이	16.0
	목옆점-어깨다트 시작점 사이길이	6.2
	어깨끝점-어깨다트 시작점 사이길이	5.5
	앞중심선-어깨다트 끝점 사이길이	8.5
	앞중심선-허리다트 시작점 사이길이	8.5
	앞중심선-허리다트 끝점 사이길이	6.5
	어깨다트량	0.8
뒷길	어깨다트 길이	5.8
	제 1 허리다트량(길이)	4.2(25)
	제 2 허리다트량(길이)	4.2(30)
	총 닉트량	8.4
	뒤중심-제1허리다트 시작점 사이길이	6.2
	뒤중심-허리옆점 사이길이	24
	견갑골 수준 겨드랑기 뒤벽 사이길이	17.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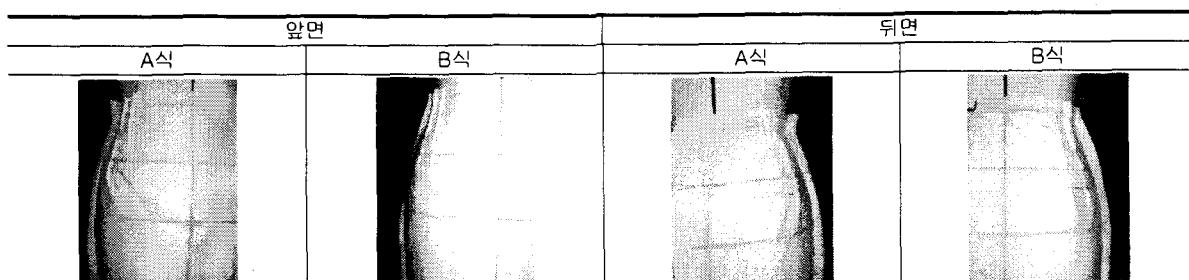
[그림 5] 상의 원형 중합도 (A식, B식)

시하였고, 원형별 공극 량은 <표 6>, 원형상의 특징은 <표 7>,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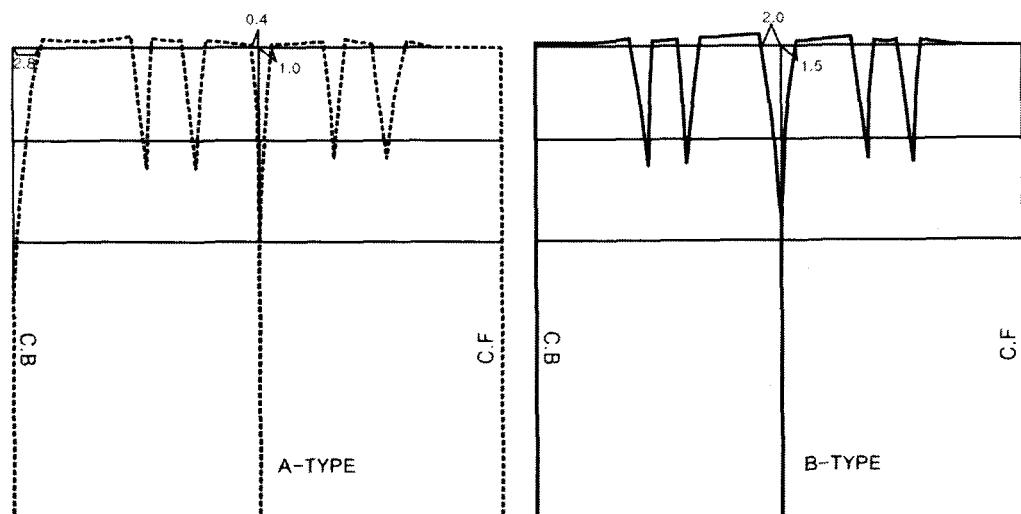
3. 기준선 변화에 따른 스커트 원형 비교

A식의 앞면을 보면 허리앞점으로부터 제 1, 2 다트를 B식과 동일한 지점에서 잡았지만 다트 끝점 위치부터 앞중심선을 향해 사선의 군주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A식 뒷면에서도 뒤중심선을 허리뒤점에서 옆선 쪽으로 2.8cm 이동시켜야 중간엉덩이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기준선이 맞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다트 끝점에서 뒤중심방향으로 사선의 군주름이 발생하였다. 옆선의 다트량과 길이에 있어서는 A식의 다트 길이가 B식보다 3cm 더 길게 나타났고 다트량은 A식에서는 뒤중심선이 옆선 쪽으로 2.8cm 이동하면서 허리옆점에서의 뒤판 옆선다트량이 0.4cm로 줄어든 반면 B식에서는 뒤중심선의 이동이 없어 뒤판 옆선다트량이 2.0cm를 나타내었다. 옆선 다트길이는 B식의 경우 옆선다트 기울기가 수직에 가까워지면서 A식의 길이보다 3cm 더 길어진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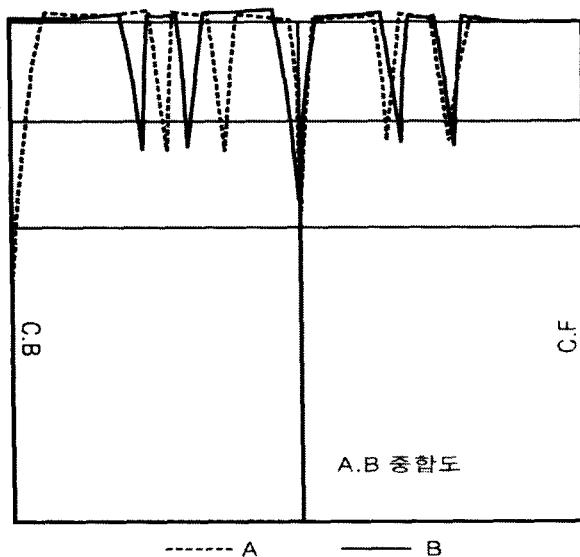
기준선 변화에 따른 스커트 원형 입체재단의 결과는 앞, 뒤, 옆면을 입체재단 후 촬영하여 [그림 6]에 제시하였고, 완성된 원형은 [그림 7], [그림 8]과 같다. 원형상의 특징은 <표 8>에 정리하였다.



[그림 6] 기준선 변화에 따른 스커트 원형 입체재단



[그림 7] 스커트 원형 완성(A식, B식)



[그림 8] 스커트 원형 중합도 (A식, B식)

4. 착의평가 결과

A, B식 원형의 착의평가 결과 차이에 의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각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공하였다. 검사 자 간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신뢰도 계수를 구한 결과 패턴 간의 평균 신뢰도 점수가 0.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관 관능검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9>는 A, B식 상의 원형 간 항목 별 유의차를 검증한 결과이다. 각 항목 별 원형 간 유의차를 검증한 결과

<표 8> 스커트 원형 사이즈 비교 (A식, B식)

단위:cm

항목	종류	A식	B식
앞판	제 1 다트량	2.2	2.0
	제 2 다트량	2.0	2.0
	제 1 다트 길이	11.5	11.5
	제 2 다트 길이	11.5	12.0
	앞중심선-제1다트 시작점 사이길이	10	10
	앞중심선-제1다트 끝점 사이길이	10.5	11.0
	앞중심선-제2다트 시작점 사이길이	14.5	14.5
	앞중심선-제2다트 끝점 사이길이	15.2	15.0
	옆선 다트량	1.0	1.5
	옆선 다트량	19	16
뒤판	제 1 다트량	2.6	2.5
	제 2 다트량	2.6	2.4
	제 1 다트 길이	12.5	13
	제 2 다트 길이	12.5	13
	앞중심선-제1다트 시작점 사이길이	8.2	8.2
	뒤중심선-제1다트 끝점 사이길이	11.2	10
	앞중심선-제2다트 시작점 사이길이	12.6	12.8
	뒤중심선-제2다트 끝점 사이길이	15.5	14
	옆선 다트량	0.4	2.0
	뒤중심 다트량	2.8	0
외관	옆선 다트 길이	19	16

기준선 및 군주름, 다트, 외관 등에서 원형간 유의차가 검증되었다. 상의 원형의 경우 기준선 항목 중 앞, 뒤 중심선은 유의차가 없었으며 젖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의 위치에서는 B식이 더 좋은 외관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앞길 군주름 부분에서는 유의차가 거의 없었으나 뒤길에서 B식이 A식보다 좋은 평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 뒤 중심선

<표 9> 기준선 변화에 따른 상의 원형 외관관능평가 결과

항목	평가내용	A		B		t-value
		Mean	S.D	Mean	S.D	
기준선	앞중심선	4.60	0.45	4.80	0.55	0.63
	뒤중심선	4.80	0.45	4.60	0.55	0.63
	젖가슴둘레선	3.40	0.89	4.60	0.55	3.46**
	허리둘레선	3.60	0.55	4.80	0.89	3.79**
군주름	젖꼭지점 주름	4.40	0.50	4.20	0.45	0.63
	옆선주름	3.40	0.89	4.60	0.45	2.56*
	뒤중심방향주름	2.20	0.55	4.40	0.55	5.77***
다아트	앞어깨다트	4.20	0.55	4.40	0.55	0.63
	뒤어깨다트	3.40	0.89	4.80	0.45	3.13*
	앞허리다트	4.60	0.55	4.60	0.55	0.00
	뒤허리다트	3.40	0.55	4.80	0.45	3.79**
외관	앞외관	4.80	0.45	5.00	0.00	1.00
	뒤외관	2.40	0.55	4.80	0.45	7.58***

*p<.05, **p<.01, ***p<.001

<표 10> 기준선 변화에 따른 스커트 원형의 외관관능평가 결과

항목	평가내용	A		B		t-value
		Mean	S.D.	Mean	S.D.	
기준선	앞중심선	3.60	0.89	4.40	0.55	1.70
	뒤중심선	3.00	0.71	4.40	0.55	3.50**
	허리둘레선	3.60	0.55	4.80	0.45	3.79**
	중간엉덩이둘레선	3.40	0.89	4.60	0.55	2.56*
	엉덩이둘레선	3.00	0.71	4.60	0.55	4.00**
군주름	복부 정점 군주름	3.40	0.55	4.80	0.45	3.79**
	엉덩이 정점 군주름	3.00	0.00	4.67	0.58	3.50**
다아트	앞다트	3.40	0.55	4.40	0.45	3.42**
	뒤다트	3.33	0.58	5.00	0.00	5.00**
외관	앞외관	4.00	0.00	4.60	0.55	2.44*
	뒤외관	2.20	0.55	4.40	0.45	5.77***

*p<.05, **p<.01, ***p<.001

등 세로 기준선은 A, B식 간의 차이가 없으나 젖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과 같은 가로 기준선의 경우는 앞, 뒤페이지 있어 뒤페이지에서 B식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크와 전체적인 외관의 경우도 군주름 항목과 마찬가지로 앞페이지에서는 유의차가 거의 없었으나 뒤페이지에서는 허리, 어깨부분 모두 큰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B식이 A식보다 좋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10>는 A, B식 스커트 원형 간 항목별 유의차를 검증한 결과이다. 스커트 원형의 경우 기준선 항목에서 앞중심선은 유의차가 없었으나 뒤후중심선의 경우 상의 원형과는 달리 비교적 큰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A식의 경우 뒤후중심선이 옆선 쪽으로 2.8cm 기울어져 패턴 안정성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엉덩이둘레선, 엉덩이둘레선 등은 의복이 착용된 상태에서는 외관상 큰 차이가 없어 큰 유의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군주름과 다크 및 전체적인 외관 부분은 앞, 뒤판 모두 유의차를 보이며 B식이 외관상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 뒤판 모두 A식의 경우 B식보다 외관상 군주름과 다크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동일한 인대위에서 허리 기준선을 허리옆점부터 허리뒤점까지 약간 처진 상태로 완만하게 내려간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과 지면과 평행한 수평선을 유지 하도록 하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기준선을 설치한 후 입체재단을 실시하여 얻어진 두 종류의 입체 원형의 차이점을

연구 주제로 삼아 입체재단 시 인대의 기준선 설정에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연구 의의를 두었으며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선 설정 방법에 따른 2 종류의 상의 입체 원형을 비교해 보면 A, B식 모두 앞길의 경우 원형의 변화가 없었고 뒤페이지 경우 A식이 군주름이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허리선 상에서 패턴 사이즈도 다크량만큼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스커트 원형의 경우 A식은 앞면에 앞중심선을 향하여 사선의 군주름이 발생하였고 뒤판에서도 뒤후중심선이 이동되었으며 다크 끝점에서도 뒤후중심방향으로 사선의 군주름이 발생하였다.

3. 원형 간 관능검사의 결과상의 원형 앞길의 경우 A식과 B식의 유의차가 거의 없었으나 뒤페이지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 1, 2 허리다트량과 길이 및 총 다크 분량, 전체 뒤판 패턴 모양 등에서는 ***p<.001 수준의 큰 유의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허리둘레선의 설정에 따라 인대의 뒤판 가로 기준선 설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 A식이 B식에 비하여 가슴과 허리 부분의 공극 량이 많아지면서 패턴 안정성과 외관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스커트 원형의 관능검사 결과에서도 A식이 뒤후중심선을 옮기고 엉덩이 정점을 향한 군주름이 많이 발생한 전체적 뒤판 평가에서 큰 유의차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뒤판 다크, 엉덩이둘레선, 허리둘레선, 앞판 군주름 순으로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대를 곡선 형태로 둘러싸는 기준선 방식인 A식이 상의원형에서와

같이 패턴 안정성과 외관에서 B식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인대의 기준선 설정에 따른 입체 패턴 비교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선 설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대의 좌우대칭과 편평율의 차이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인대에 일반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 하의 분리된 원형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원피스나 드레스 원형 등에 적용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교 방법을 다양한 원형에 대응시켜 현행 기준선 설정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디자인별로 새로운 기준선 설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인대, 허리 기준선, 입체패턴

참 고 문 헌

- 장진희 (1987). 입체재단과 평면제도에 의한 Bodice 원형의 비교연구, 성신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경, 이영주 (2006). 슬랙스의 waist line 위치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착용감.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811-821.
- 박은희 (1987). 입체재단법에 의한 바디스의 요인구조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경 (1991). 인대의 치수와 형태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임 (1990). 평면재단과 입체재단을 통한 체형별 원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三吉滿智子 (2000). 옹혜정, 조영아, 서추연, 최경미 옮김 (2002). *복장조형학 이론편 1*. 서울: 교학연구사. 178.
- Hilde Jaffe, Nurie Relis(2005) *Draping For Fashion Design (4th Ed.)*. New York: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New York.

(2007. 6. 21 접수; 2007. 8. 30 채택)